

“계·정·혜 삼학 닦으며 군생활을…”

태고종 전북종무원, 35사단 군장병 위문법회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이 전북 향토사단인 35사단 호국 충경사를 방문해 특별위문법회를 봉행했다.

4월 15일 35사단 호국 충경사(법사 덕명) 법당에서 열린 이날 특별 위문법회는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총무국장 송운 스님, 탑 밴드, 진안자원봉사센터 봉사단, 불자장병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사진〉

진성 스님은 장병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 법어를 통해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고된 훈련에 지친 장병여러분들은 모두 우리의 자녀들”이라며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분위기 무르익어 가는 요즘과 같은 시기일수록 계정혜 삼학을 지켜 건강하고 지혜로운 군생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위문법회에는 리티댄스 팀, 가수 한유빈, 마이산 탑 밴드, 아이돌 댄스팀 리멤버 등이 출연해 공연을 선보이며 고된 훈련으로 지친 군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또 ‘떡볶이 스님’으로 알려진 송운 스님과 진안 자원봉사센터 최미자 사무국장 등 봉사단은 장병들에게 매콤한 떡볶이와 진안홍삼찐빵, 커피, 음료와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했다.

수원 출신 김동규 훈련병은 “고된 훈련을 마치는 신병훈련소에서의 마지막 휴일에 그동안 고된 훈련의 어려움을 잊게 만들어 주는 위문법회였다”며 “군생활은 이제 시작이지만 다치지 않고 더 멋진 아들로 사회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5월 18일에도 제6탄약창 호국 장영사에서 봉축위문법회를 봉행하며, 지역 군장병 포교와 봉축분위기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구 해운정사, 아라한 육법공양대재

노인주간보호센터 개소도



대구 달서구 해운정사(주지 청명)는 4월 15일 경내서 오백나한 봉안 2주년 육법공양대재를 봉행했다.〈사진〉 대재에는 천불사 정우 스님과 200여명의 대중이 동참했으며, 의식집전은 비로암 월오 스님, 마하사 혜오 스님이 맡았다.

해운정사 주지 청명 스님은 “아라한은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을 통해 일체의 번뇌를 끊고 수행자들의 최고 계위인 아라한과를 얻은 성자를 이른다”며 “내 마음 안에 행복이 흘러넘쳐서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온 세상이 행복합니다”라는 행복발원문을 낭독했다. 이어 아라한에게 ‘오직 바라옵건데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라며 육법공양을 올렸다. 법회에 이어 2부에는 영산합창단의 음성공과 불교무용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해운정사는 이에 앞서 13일 송현역 농협 3층에서 ‘청명실버 주간보호센터’ 개소식 및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창원 천불사 정우 스님과 (선)승가회 회원 스님 및 일심비구니회 스님, 이태훈 달서구청장, 배지숙 대구시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명 스님은 “출가 후 평소 어르신들을 평생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을 화두로 삼아 수행정진 했다. 또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고 센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찰 순례로 배우는 불교문화 정수

(사)미소원,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사찰순례 전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해남 대흥사에는 왜 사천왕이 없을까? 사찰이 좋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불교문화와 문화재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지만 궁금증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우리나라 문화와 문화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불교문화를 쉽게 풀어 부처님 법을 전하는 현장이 있다. 바로 사단법인 미소원이 진행하는 ‘조계종 25교구본사 사찰순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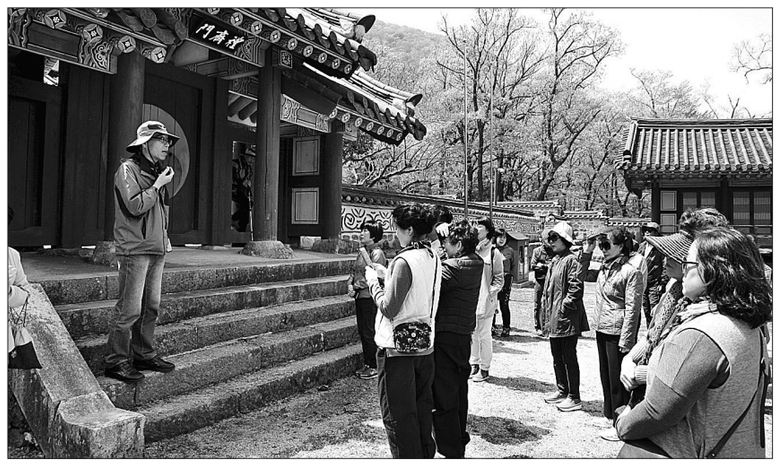
사단법인 미소원(원장 장유정 · 이하 미소원)은 4월 15일 ‘불교미술 전문해설가 김춘식 교수와 함께하는 조계종 25교구본사 사찰순례’를 실시했다. 미소원은 부산에서 20여 년간 사찰순례를 진행해 불교문화로 포교에 앞장서 왔으며,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불교 기행으로 폭넓은 활동을 이어왔다. 매번 순례마다 접수 시작 후 10분 만에 참가 인원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난해 6월부터는 새로운 기획으로 한 달에 한 번 조계종 25교구본사를 탐방하는 순례를 시작했다. 10회째를 맞아 방문한 순례지는 22교구본사인 해남 대흥사.

이른 아침, 버스에 몸을 실은 미소원 회원들은 일제히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독송 후 〈금강경〉을 펼쳤다. 〈금강경〉 독송과 기도로 출발을 알린 회원들은 부처님의 가피로 행복한 순례가 되기를 발원했다. 해남사에 도착한 미소원 회원들은 김춘식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김춘식 교수는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불교문화포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불교문화 전문해설가다. 20년 전부터 미소원과 인연이 되어 불교문화를 설명하고 문화재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는 베테랑이다. 김 교수는 대흥사가 위치한 두륜산의 의미부터 전각과 설화, 서산대사와 초의 선사 등 대흥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이어온 사찰 순례
불교 문화재 설명은 곧 전법
비불자가 만나는 부처님 세상
“행복한 불국토 세상으로 안내”

“대흥사에는 서산대사의 의발을 보관한 곳으로 호국성지입니다. 서산대사의 의발이 보관된 후 초의 스님을 비롯해 대선사가 탄생한 가람이지요. 대흥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정조대왕, 원교 이광사, 추사 김정희 등 당대 최고 명필이 적은 현판입니다.”

그는 이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곳이란 무염지(無染池) 연못은 한자 마음 심(心)자 모양이다. 화기를 누르고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데, 대흥사 곳곳이 부처님의 말씀을 설명해 둔 불국정토”라고 강조했다.



대흥사를 방문한 미소원 회원들이 김춘식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 교수는 대흥사 천불사 부처님과 가사에 담긴 설화, 서산대사 사당인 표충사, 부도탑 등 전각 곳곳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미소원 회원들은 대흥사에 이어 말사인 은적사를 방문하고 순례를 마무리했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미소원 순례가 특별한 이유는 김춘식 교수님의 전문 설명이 한몫을 한다”며 “자연 속에서 쉼을 얻기도 하지만 사찰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해 전법의 장소가 된다”고 말했다.

답사 참가자들 가운데는 회원 뿐 아니라 순례에 참여하기 위해 처음으로 방문한 사람들도 있었다.

송미정(50 · 부산 명륜동) 씨는 “불교를 좋아하지만 자주 사찰에 가거나 공부를 하지는 못한다”며 “오늘 처음 왔는데 대흥사에 도착한 그 순간 힐링이 되고 마음이 열린다.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것이 새로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류도겸(58 · 부산 구서동) 씨는 “나를 미소원에 소개해준 사람은 바로 가족들이지만 가족 대부분이 가톨릭신자다. 그럼에도 가족 덕분에 몇 해 전 사찰 순례에서 김춘식 교수님 설명을 듣고 불교문화포교사 과정을 밟기도 했다”며 “오늘 가족 추천으로 처음 방문했는데 불교 언어와 상징 세계를 알게 돼 불교를 보는 깊이가 달라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미소원은 오는 5월 13일 동화사와 은해사 거조암으로 교구본사 순례를 떠난다. 장유정 이사장은 “누구나 동참 가능하다”며 “사찰 순례를 통한 행복한 불국토 여행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51)646-9074

선운사 전법도량 고창불교회관 ‘첫 삽’

고창 뉴타운 120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스님(왼쪽 네번째) 등 내빈이 고창불교회관 기공식에서 시삽하는 모습.

고창 선운사가 어린이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포교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중인 전법도량 고창불교회관이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4월 14일 고창군 월곡지구 뉴타운 고창불교회관 건립부지에서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스님, 서울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 선운사 前주지 법현 스님, 범여 스님, 문수사 주지 태효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고창군의장, 선운사 합창단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고창불교회관은 어린이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포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매입한 3,930㎡(1,188평) 대지 위에 연건평 3,596㎡(1,087평)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오는 11월 완공 예정이다.

내부시설로는 법당을 비롯해 체육시설, 다목적실, 지도자실, 청소년 동아리방, 상담실, 어린이 도서관, 강의실, 북카페, 다문화 가족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선운사는 약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선운사는 이미 선운사복지재단을 통해 고창종합노인복지관과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고창종합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어 불교회관이 건립되면 유아에서 노인, 다문화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와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는 종합 포교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고창불교회관은 고창뿐만 아니라 전북 서남부 지역의 포교도량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포교와 사업을 선도하고 불교 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고 소통하며 불교의 가치를 알리고 포교를 활성화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운사는 같은 날 정호대종사 70주기 추모재와 역대 조사스님들의 다례재를 대웅보전과 조사전에서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